



‘에이즈감염인들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 주제

다양한 행사와 활동으로 감염인에 대한 관심을...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국제회의가 태일랜드에서 열려 본회 이용수 이사과 김대규 이사가 참석하였다. 이용수 이사의 현지 리포트를 게재한다.

이용수 본회 이사 · 한림대 객원교수

제5회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국제회의가 17일부터 21일 까지 태일랜드의 북부도시 치앙마이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온 테키소라는 소녀는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의 입원환자의 60%는 에이즈 환자이며 24~44세 사망자의 27%가 에이즈에 의한 것”이라며 에이즈에 걸린 남자들이 처녀와 성 관계를 가지면 에이즈가 치료된다고 믿고 어린이를 강간하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세계 최대의 에이즈 감염지역인 아프리카의 실상을 소개했다.

또 아시아 최대의 에이즈감염지역인 태일랜드의 경우 인구 4천여 만 명 가운데 1백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이중 30만 여명이 사망해 현재 70여 만 명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다고 태일랜드 적십자사 총재는 밝혔다.

>> 에이즈 감염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심 호소

이번 모임에는 에이즈 감염인 관리에 대한 각국의 사례 및 연구발표와 현장탐방, 포스터 전시, 시가행진, 감염인들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본 회의장에서 발표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주제들은 별도의 포스터 설명으로 각 나라의 에이즈대처 노력을 설명했다.

에이즈 라운지가 따로 마련되어 세계 곳곳에서 온 에이즈 감염인들이 한데 모이는 기회도 가졌고 그들은 소외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외로움을 사회가 이해해 달라는 공연을 갖기도 했다. 포스터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태일랜드의 전통 음악과 무용 등 다양한 문화행

사도 마련되었다.

가장 행렬, 피켓시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2시간동안의 치앙마이 도심행진은 모든 시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고는 물론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을 호소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태일랜드에서의 에이즈의 시작은 태일랜드의 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이 지역에서의 관심은 높은 실정이다.

>> 차별받던 감염인을 지역주민으로

특히 에이즈관리에 대해 지역협력을 잘하고 있는 현장탐방에는 신청자가 크게 몰려 단연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치앙마이지역에서 대표적인 지역은 산파동지역에 있는 후린사(寺) 지역협력센터와 메롱 지역의 지역협력센터.

이 두 지역에서는 에이즈를 남편으로부터 에이즈를 옮겨 받은 여인들이 우선 가족들을 설득하여 협조를 얻고 다음에 같은 처지의 에이즈 감염인들을 규합하고 여기에 후린사나 기타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이 지원하고 나섰다. 차별받던 감염인들이 차츰 몇몇한 지역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산파동 지역에서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쏘냐 우타준여인(38)은 이미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에이즈를 옮겨 받고 가족과 마을사람들로부터 냉대받기 시작하자 ‘에이즈 감염인도 다른 질병과 같이 그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을 설득하고 이 지역의 감염인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

- 1 매릉지역 협력센터 펠자이 여인
- 2 퍼레이드
- 3 산파동 후린사(寺)의 감염자들과 (윗줄 왼쪽 두번째가 펠자)
- 4 개회식 감염자들의 퍼포먼스



95년부터 시작한 이 운동에는 처음에는 5명이 동참했으나 지금은 이 지

역의 감염인 35명이 조직을 만들어 후린사의 지원으로 매월 모임과 교육, 직업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 이 지역 감염인 35명 가운데 2명만 20세 이고 나머지는 20세~40세이다.

매릉지역의 지역협력센터. 남편으로부터 에이즈감염인이 된 펠자이여인(36)은 우선 약초를 다루는 부모를 설득하고 이 지역의 환자들을 모은 다음 서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직업교육을 받아 작은 수입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에이즈감염인들이나 그 가족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일, 그들의 경험을 서로 나눠 갖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그룹모임을 하는 일, 감염인들의 인거리마련을 위한 직업교육, 환자들을 위한 병원추천과 견학의 예방대책, 치료제로 쓸 수 있는 한약의 복용지도,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의 상호 교류센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 센터에 늘 함께 있는 감염인은 10여명. 다른 지역에서 온 감염인도 4명이나 된다. 펠자이여인은 이 지역 주민의 30%가 감염인이라 말했다. 이 지역센터가 있는 곳은 묘지지역으로 정부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건물을 짓고 모임장소를 마련하여 감염인들의 모임이 주기적으로 열리는 한편 5대의 제봉틀을 두고 인형, 모자, 손지갑 등을 만들어 국내외에 팔아 작은 수입을 얻고 있다.

미래의 계획에 대해 묻자 펠자이 여인은 시종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모든 지역이 에이즈감염인들을 따돌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오래지않아 찾아올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9세 여자환자의 집을 방문했다. 까부잡잡한 얼굴에 수척한 모습에 한눈에 에이즈환자임을 직감했다. 첫번째 남편으로부터 에이즈를 얻었고 그 남편이 죽자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제 부부는 모두 환자로 따로 떨어져 이웃해서 살고 있다. 동생의 시중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어제는 아무 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러나 그녀는 우리 방문객을 맞으면서 계속 웃음을 머금은 채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오히려 우리를 채근했다. 찾아준 것이 고맙고 마을사람들이 차신을 받아주어 고맙다고 했다.

>> 국가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관심도 다양

이번 대회에서 타일랜드인의 관심은 성공의 요체였다. 전문프로그램은 물론 일반교육프로그램에서 방청석은 연일 반원을 이루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미얀마, 아프리카에서 온 참여자들이 많았고 선진국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에이즈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심이 크게 다음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번 모임에는 북한적십자사에서 4명이 참석했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없다고 한다.